

말레이시아, 무선 통신 시장 최근 동향

□ 무선 통신 시장 현황

-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주춤했던 말레이시아의 이동 통신 시장 성장세는 1999년부터 회복되어 2000년에는 총 가입자수가 512만 2,000명으로 유선 통신 가입자수를 능가하였음.
- 2001년 9월 기준, 전년보다 53% 증가한 총 78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까지 총 900만 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3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점유 현황

- 현재 말레이시아 무선 통신 시장 참여 허가업체는 6개임.
 - Maxis(가입자수: 230만명), Celcom(213만명), TMB(130만명), Time dotCom(120만명), Digi(92만명) 총 5개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TMB가 TM Touch, Mobikom으로 2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무선 통신 시장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¹⁾ 방식과 DAMPS(Digital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²⁾ 방식으로 양분되어있으며 이중 GSM방식이

1)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임. 시분할 다중접속(TDMA)의 변종으로 TDMA, CDMA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3개의 디지털 무선전화기술 중 하나임. 이것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압축한 다음, 그것을 두 개의 다른 사용자 데이터와 함께 한 채널을 통해 보내는데, 각각의 데이터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간대에 보내짐.

2000년 말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92%를 점유하고있음.

- Maxis, Celcom社: GSM900
- Time dotCom, TM Touch, Digi社: GSM1800
- Mobikom社: DAMPS

표1) 주요 5개社의 시장 점유현황

단위:%

	Masxis	Celcom	TMB	Time dotCom	Digi
2000	28	29	18	17	8
2001	29	27	17	15	12

자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통신장비 시장 현황

- 2001년 9억 5,660만 달러 규모(유선포함) 였던 시장은 향후 2년간 8~10%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02년에는 10억 3,500만 달러, 2003년에는 11억 7,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통신 장비 현황
 - 인프라 설비: 스위칭 시스템, 무선·광통신 등 네트워크 시스템, 음성 및 문자 변환 네트워크
 - 가입자 설비 : 이동전화기 및 그 부속품
 - 각종 소프트웨어 : platform applications, 통신망 및 가입자 관리 소프트웨어 등
-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Ericsson(39%), Motorola(26%) 등의 외국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 대만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음.

2) 800MHz~900MHz에서 운용되고 각 채널은 30KHz의 대역폭을 가지는 AMPS의 발전형으로 AMPS의 단점인 저용량과 데이터 통신에 취약한 점을 개량한 방식임. 이는 AMPS 용량의 3배이며 800MHz~1900MHz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대역을 가짐.

- 산업 특성상 서비스 업체와 장비업체간의 상호 의존도가 견고한 편인데, Digi, Celcom, TMB는 Ericsson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며, Maxis는 주로 Motorola로부터 장비를 구입함.

□ 수입 규제 현황

- 모든 통신장비 수입품은 SIRIM Bhd社³⁾로부터 형식 승인을 거쳐 수입허가를 얻어야됨. 단, 수입품이 판매용이 아닌 수입사의 내부용도라면 형식 승인은 생략 가능하며 측정용 수입 장비는 특별 승인을 통해 형식 승인이 6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시장 전망

- 정부는 2003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6월초에 3G 통신 업체 입찰 신청을 마감하였음.
 - Maxis, TMB, Celecom, Time dotCom, E-Touch 총 5개社가 참여하였으며, 7월 30일 이중 3명의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임.
 - 현재, Maxis, TMB의 라이선스 획득은 확실시되며, 나머지 한 장을 두고 Time dotCom과 E-Touch가 경합중.
 - Celecom은 TMB로의 합병이 유력시됨.
- 최근, 말레이시아의 3G 통신으로의 전환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는 말레이시아가 지식 경제 전환의 일환으로 3G 통신으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3G 라이선스 취득비용이 너무 싸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며,⁴⁾ 따라서 입찰 참여 업체들 중에는 3G 통신 서비스보다는 낮게 설정된 라이선스 가격 자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있음.⁵⁾ 또한 사업자들도 현재 2.5G 격인

3) 정부로부터 통신장비 수입품의 형식 승인 검사와 수입 허가 권한을 이양 받은 민간회사.

4) 현재 말레이시아의 3G 라이선스 획득 비용은 약 1300만 달러로, 라이선스 획득비용/총인구 가격이 영국이 600\$, 독일이 560\$, 대만이 53\$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0.55\$에 불과함.

GPRS⁶⁾ 서비스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3G 통신으로의 전환은 과잉 인프라 투자라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이동 통신 보급율은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해 무선 통신 시장 자체는 아직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단, 3G 통신이 W-CDMA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데이터 통신 전송 용량 관련 장비 및 CDMA 관련 인프라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Flat-rate broadband access와 Bandwidth-based Internet access 장비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책임연구원 류재욱 (☎3779-6664)
E-mail : jaeukkor@koreaexim.go.kr

5) 실질적으로 E-Touch의 경우는 아직 기업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통신 사업 경험도 없는 투자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6) GSM 통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회선교환 방식의 휴대폰과 단문서비스 등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들을 보완한 것으로 2000년도에 사용 가능하게 된 패킷 기반의 무선통신 서비스. GPRS의 고속 데이터 전송으로 말미암아 사용자들은 화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노트북 컴퓨터는 물론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웹사이트 등과 상호 통신을 할 수 있음.